

박종구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구축된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토대로 성과 창출할 것”

2007년을 맞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
지난 1월25일 제2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의 공무원으로 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서 활약해온 인물.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 아들이라는 집안 배경도 세인의 관심을 모은다.
범 부처적인 성격을 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본지 3월호에서 신임 본부장의 생생한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본지 편집위원) eujung@kyunghyang.com

◆ 먼저 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이 되신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7년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해로, 지금까지 수행해 온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성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 2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핵심 조직입니다. 따라서 혁신본부의 성공여부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구축한 과학기

술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성과를 창출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 **참여정부가 초기에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쳤으나 지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출범 초기는 정책을 담은 큰 그릇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에 없던 과기부총리체제도 만들고 혁신본부도 발족시키는 등 외형적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들어진 조직을 다지고 내용을 채워가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차분하게 일을 해야하는 시기죠. 이것을 느슨해진 것으로 간주하면 안되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본부장님은 원래 경제학자였고,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민간출신과 공무원이 다양하게 구성된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1998년 공모를 거쳐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공공관리단장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국무조정실로 옮겨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경제조정관, 정책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약 10년의 공무원 생활 중 절반을 예산처, 절반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낸 셈이죠.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 민영화 업무를 담당했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장 업무를 맡는 등 다양한 부처와 집단의 이해가 얽혀있는 업무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혁신적 외인부대' 라고도 불리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출신인 제가 공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주위 분들의 배려가 컸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R&D투자는 이제 선진국 수준(세계 8위권)으로 올랐습니다. 2007년도 국가 R&D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R&D 예산은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정확히는 9조7천629억 원(약 105억 달러)으로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이래 2년 연속 여타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기초연구와 지방R&D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상·방재분야(41%), 건설·교통 분야(26%), 국방분야(19%) 등 국가안보, 국민의 삶의 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성·전문성과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검증을 강화하여 중복투자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및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처 역할에 맞게 사업을 조정·이관하여 효율적인 국가 R&D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기상방재 분야나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끄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은 기초과학 위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복지와 공공 부문에서도 과학기술이 기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상이나 교통, 건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에 대한 성과물이 제대로 나와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 **증가된 국가 R&D 투자액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그간 정부와 민간의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2006년도에 한국은 과학경쟁력 12위, 기술경쟁력 6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가 R&D 중장기 토탈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토탈 로드맵은 정부 재원여건을 고려하여 R&D 사업을 보다 효율화·특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전략'으로 국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R&D 사업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R&D 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조정·배분을 긴밀히 연결하여 국가 R&D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투자효율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R&D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우수사업은 증액하고 성과미흡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등의 조

Interview

치를 취할 것이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 R&D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투자와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관련 사업(비R&D 포함)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꾸준히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합니다. 과학기술경쟁력의 주체는 우수한 인재에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핵심 인재들을 좀더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어릴 때부터 선발하여 대학 졸업까지 집중 육성하는 제반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적으로 풍부한 이공계인력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인력으로 배출하는 것이 관건이죠. 공과대학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도입 등으로 교과 과정을 혁신하고 기업체가 필요한 맞춤형·융합형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연구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공계 재학 시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제도, 이공계 졸업자의 공직진출 도모, 연구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여 이공계 핵심인력을 육성·지원해 가고자 합니다.

◆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 안정적 연구비 확대, 노후보장 및 과학기술인이 긍지를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05년 9월 이공계지원특별법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현장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출연(연)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의 기본사업비를 2004년 33.5%에서 2008년 50% 수준으로 확대하며, 연구개발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원이 정년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공계 연구인력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연구 요원 복무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을 통해 노후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경력·퇴직과학자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성총리뿐 아니라 판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아직 미진한데 이와 관련된 지원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총리를 직접 모시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과학기술분야는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가 진행되는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섬세함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비율은 12.9%에 불과(2005년12월 기준)해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수



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무조건 일터로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12월에 대덕연구단지의 보육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이공계 여학생들을 적정 수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계의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교육, 취업지원,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이화여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 전남대, 부산 동서대에서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여성지원센터를 증설하기 위해 예산 2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또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채용비율을 각 출연연구소 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5개 정부 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직급별 승진목표제'를 시행하고, 이를 국·공립연구기관에도 확대·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과학자들을 위해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도 만들어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공계 여성인력 대비 취업률이 좋은 학과(소계열)를 분석, 이를 토대로 여학생비율 제고 대상 학과를 선정하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 적정 수준의 여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에 목표비율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전담연구지원사업'의 지속 시행,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가점제 실시 등 여성 과학기술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입니다.

◆ 책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을 즐겨 읽으며, 과학분야 관련 책은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요.

새로운 책을 찾아 읽는 것을 즐깁니다. 흔히들 책을 볼 시간이 없다고들 하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한 후 잠깐 남는 시간에 책을 볼 것인지, TV를 볼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지난 설날 연휴기간에는 실크로드 문화기행을 읽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러시아학자가 쓴 '스탈린'과 '주은래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책 하나만 계속 읽으면 지겨우니 2가지를 번갈아가며 읽는 것도 좋습니다. 과학 서적으로는 영국과학사학자 조지프 니덤이 쓴 '중국 과학과 문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읽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자 가족이면서 기업 경영은 뜻을 둔 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시지요.

저는 지금은 돌아가신 큰형님의 영향을 받아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공한 분야는 재정학이라 기업보다는 정부 차원의 공공적인 부분이 대상이었습니다. 아주대 교수로 재직할 때도 공기업 평가 등 정부와 관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전공으로 봤을 때 기업 경영보다는 정부 조직에 더 맞는 거죠.

저희 다섯형제 중에 셋째 넷째 형님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상당히 자주 만납니다. 가족모임 혹은 개인적인 만남 등으로 2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둘 다 아직 초등학교생입니다. ㉟

박종구 본부장 약력

- 1975 충암고 졸업
- 1979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 1982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 석사
- 1987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 박사
- 1987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1998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공관리단장
- 2002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 2003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2006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 2007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